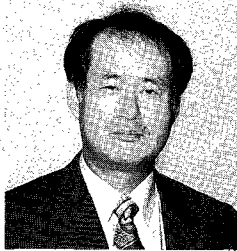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건망증, 건망증



김 정 인
신촌사료(주) 부사장

사람은 창조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잘 잊어버리는 망각성 동물이기도 하다.

최근 IMF사태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무더기로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등 우울한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복잡한 서울거리가 연료가격이 폭등한 후 줄어든 차량으로 인하여 한산해지고,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환경문제가 해결되어 공기가 맑아졌다고 하여 전임 모대통령의 공적(?)으로 회자되는 얘기가 나온 것도 엇그제 같은데 따사한 봄볕 아래 다시 쏟아져나와 복잡해진 서울거리의 차량홍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새벽 4시에 촬영한 노숙자의 사진과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는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아프지만, 다시 홍청대는 휘황한 불빛아래서 홍청대는 유흥가 풍경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약간의 자학같은 이야기지만 최근 한국사람의 특징을 건망증으로 정의하거나 냄비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건망이란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는 것이라 하고 건망증이란 이런 병증세를 말한다고 한다.

냄비근성이란 쉽게 끓고, 쉽게 식는 즉,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성격을 자조하는 표현일 것이다.

하기는 꼭 잊어야 할 것도 잊지 못하고 머리 속에 차곡차곡 담아둘 수 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도 모두 잊어버리는 건망증 사회도 이에 못지않게 우스꽝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지난 2월 25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신

임대통령은 새 농림부장관을 임명하였다.

김대중 신임대통령의 중소기업과 농촌사랑은 누누히 강조된 이야기니까 접어두기로하고, 김성훈 신임농림부장관은 경제학자이면서도 한때 재야운동 학자로 오해받을 만큼 있는자 보다는 없는자를, 도시보다는 농촌을 지지하고 사랑해온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

UR협상때 그는 한국농업의 생존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뛰었고 또한 그가 열정적으로 벌인 우리쌀 지키기 운동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감동속에 「건망」되지 않고 있다.

UR협상이 막바지에 이를무렵 만나본 당시 김성훈 교수는 일본과 한국정부의 UR협상 태도를 설명하며 개탄하였다. 일본은 UR협상에 관한한 전문관료가 10여년 움직이지 않고 연구하고 뛰고 있으나 한국의 관료는 일년에 두 번 정도씩 바뀌고 있어 도저히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학계에 의뢰하여 얻은 대UR연구 논문이 200편이었으나 한국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한국의 산업 특히, 농업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금치못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단순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를 경계하였고 쌀은 우리 국민의 피요, 살이며, 혼이다라고 외쳤다. 아울러 그의 한국축산에 관한 애정 또한 쌀 못지않게 진하며 감동적이었다고 기억한다.

역대 한국농림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이고, 최장수 장관이라야 36대 박종문씨의 2년 10개월이라고 한다.

농업의 특성상 1년 남짓한 임기에 장관의 소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

꼭 잊어야 할 것도 잊지 못하고 머리속에 차곡차곡 담아둘 수 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도 모두 잊어버리는 건망증 사회도 이에 못지않게 우스꽝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

어떤 결실을 보려면 일정한 기간을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 한국의 축산업 또한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은 쌀농사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수립하기 전에 정책은 세밀히 검토, 연구되어야 하고 시행하는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어야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디 학자시절의 김성훈 박사의 해박한 경제학적 지식과 우리농촌 사랑이 잘 접목되어 사상 최장수의 농림부장관으로서 활약할 것을 기대해 본다. 단지 김성훈 장관이 예외적으로 건망증 환자가 아닌 한국 사람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3월 25일자 모일간지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한달만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 임기에 대하여 코멘트한 기사로 인용하며 맺을까 한다.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맡겼으면 잘하도록 도와주며 안정되게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계